

즉시 배포용: 2019년 9월 2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멘톨 맛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의 권고 수락

주지사는 Zucker 커미셔너에게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PHHPC) 회의를 소집하여 멘톨 맛을 금지하기 위한 긴급 규정을 확대하도록 지시

새로운 데이터는 청소년의 멘톨과 민트 맛 전자 담배 사용량의 놀라운 증가를 인용

주지사에게 제출한 Zucker 커미셔너의 권고사항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로부터 멘톨 맛 가향 전자 담배와 니코틴 액상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권고를 받아 검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권고](#)를 수락하고 긴급 규정을 확장해 멘톨 맛을 금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중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ublic Health and Health Planning Council) 긴급 회의를 소집하도록 커미셔너에게 지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자 담배 회사들은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맛을 사용하고 있으며 뉴욕은 이러한 마케팅 전술을 종식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철저한 평가 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향 전자 담배에 대한 금지뿐만 아니라, Zucker 커미셔너는 멘톨 맛 전자 담배 또한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저는 그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추가 금지 사항을 채택하는 긴급 회의를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며 모든 젊은 세대가 니코틴에 중독되게 할 수 없습니다. 멘톨 맛 판매 금지는 청소년들이 평생 지속되는 위험한 습관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뉴욕은 2019년 9월 17일에 공공 보건 및 보건 계획 위원회(PHHPC)의 긴급 규제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 후 미국 최초로 가향 전자 담배 및 니코틴 액상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주지사는 Zucker 커미셔너에게 멘톨 맛이 금지 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커미셔너와 그의 팀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오늘 아침 주지사에게 권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서의 검토 내용에는 미국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15세에서 17세 사이의 뉴욕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조사와 더불어 의료 기관의 여러 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19년 봄에 실시되었으며 지난주에 분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미국 보건부(DOH)의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청소년들의 멘톨 맛 전자 담배 사용률이 매우 높으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멘톨 또는 민트 맛 전자 담배에 대한 십대의 선호도는 34.1%로 과일 맛(51.8%)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 청소년 전자 담배 사용자의 멘톨 또는 민트 맛에 대한 선호도는 2017년의 19.9%에서 2019년의 34.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 "멘톨 또는 민트 맛 액상 담배는 건강에 얼마나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거의 절반에 달하는 청소년들(47.8%)이 멘톨 맛 액상 담배가 담배 맛 액상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연구는 가향 전자 담배의 금지 품목에 멘톨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자 담배에 더해진 향은 청소년의 전자 담배 사용의 극적인 증가와 청소년들이 전자 담배 사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현상의 주된 이유입니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12학년 학생의 거의 40% 및 고등학생 27%가 현재 전자 담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가향 전자 담배 액상에 의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0.5%에 그쳤던 고등학생의 담배 사용은 2018년 27.4%로 160%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2016년 4.3%의 사상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가향 전자 담배를 홍보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향은 일반 담배, 쉐련, 및 무연 담배 시장과 같이 전자 담배/에어로졸 산업에서 청소년 마케팅의 핵심 전략입니다. 전자 담배 마케팅에서는 민트 초콜릿, 풍선껌 및 체리 콜라와 같은 향을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전자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현혹하여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현재 전자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15~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설문 조사에서 청소년의 19%는 처음 전자 담배를 시도한 이유가 맛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7%는 전자 담배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맛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6년 거의 78%의 고등학생과 75%의 중학생이 담배 사용을 옹호하는 마케팅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추진 예정인

법안은 이러한 사기성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부 및 보건부의 지구 사무소는 10월 4일(금)부터 시작되는 기존의 전자 담배 및 금지 시행을 관리합니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소매업자는 위반 건당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